

아담 스미스의 자연관과 뉴턴과학에 대한 이해

김지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 | |
|--------------------------------|--------------------------|
| I. 서론 | III. 스미스의 생기적 도덕체계와 경제체계 |
| II. 천문학의 역사와 뉴턴 체계에 대한 스미스의 인식 | IV. 결론 |

I. 서론

아담 스미스(1723-1790)는 『국부론』(1776)에서 근대 경제학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경제학자이자 『도덕 감정론』(1759)을 저술한 도덕 철학자로서 잘 알려져 있다.¹⁾ 또 한편으로 스미스는 제자로부터 “도덕과학의 뉴턴(the Newton of the moral sciences)”이라고 불릴 만큼 뉴턴의 저작과 뉴턴주의자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²⁾

특히 스미스는 “천문학사”와 “수사학과 문학에 대한 강의” 등의 에세이에서 뉴턴의 방법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사후에 출판된 “천문학사”에서 스

1) 현재 국내에 아담 스미스의 저서는 『국부론』과 『도덕 감정론』만이 번역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아담 스미스, 유인호 역, 『국부론』 (동서문화사, 2008)과 아담 스미스, 박세일·민경국 역, 『도덕 감정론』 (비봉출판사, 1996)을 사용했다. 『국부론』은 김수행, 정해동, 최임환 등 여러 번역본이 있다. 유인호의 번역본을 제외하고 모두 절판되어 본고에서는 유인호의 번역본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도덕 감정론』의 번역본으로는 비봉출판사에서 출판된 박세일의 번역본이 유일하다.

2) Margaret Shabas, “Adam Smith’s Debts to Nature,”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35 (2003), p. 263.

미스는 과학이론의 발전과정과 과학적 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뉴턴의 체계를 천문학 역사상 가장 완벽한 체계로 제시했으며,³⁾ “수사학과 문학에 대한 강의”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뉴턴적 방법을 비교 설명하면서 뉴턴적 방법이 더 철학적이고 매력적인 방법이라고 언급했다.⁴⁾

스미스가 “천문학사”에서 뉴턴 체계를 완벽한 체계로 평가했던 이유는, 뉴턴이 천체 현상들을 가장 완벽하게 연결하여 모든 의아함을 제거했기 때문이었다. 스미스의 설명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세계에 존재하는 규칙성이나 유사성을 발견할 때 기쁨을 느끼며, 불규칙한 자연현상이나 기존의 이론과 맞지 않는 현상을 관찰할 때 ‘의아함(wonder)’이라는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러한 의아함을 잠재우기 위해 서로 다른 현상들을 ‘연결원리(connecting principle)’로 연결하는 사람들이었다. 천문학의 역사는 이렇게 천체현상을 관찰하면서 발생하는 의아함을 잠재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뉴턴은 서로 다른 현상들을 완벽히 연결하여 의아함을 완전히 제거했다는 것이다.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뉴턴 체계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최고의 천재이자 성인인 아이작 뉴턴이 행성들의 운동을 이토록 익숙한 연결원리로 연결할 수 있음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일찍이 철학이 일궈내지 못한 가장 행복하고 위대하며 가장 경이로운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연결원리는 우리의 상상력이 그것들에 주목했을 때 우리가 느꼈던 어려움들을 완전히 제거했다.⁵⁾

3) 스미스는 1740년부터 1746년까지 스넬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옥스퍼드의 밸리올 칼리지에서 수학하였는데, 이곳 도서관에서 고대 천문학에 대한 문헌들을 섭렵한 후, 고향 커콜디에 돌아와 “천문학사”를 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스미스가 언제까지 “천문학사”를 집필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스미스는 1773년 흄에게 보낸 편지에서 “데카르트 시기까지의 천체 체계 시스템에 대한 역사를 포함하는 위대한 작업을 수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뉴턴 천문학의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1773년 이후에 씌어졌다고 짐작할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스미스가 말년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천문학사”를 집필했음을 알 수 있다. Adam Smith, E. C. Mossner and I. S. Ross ed., *Glasgow Edition of the Works and Correspondence of Adam Smith* VII (Indianapolis: Liberty Fund, 1987). Chapter 137.

4) Adam Smith, “Lectures on Rhetoric and Belles Lettres,” J. A. Bryce and A. S. Skinner eds., *The Glasgow Edition of the Works and Correspondence of Adam Smith* IV (Oxford: Clarendon Press, 1983). 이 강연록은 스미스가 1762-1763년에 글래스고에서 강의한 내용을 학생이 기록한 것이다. 1958년 에버딩 경매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뒤, John M. Lothian 교수가 이를 편집하여 1963년 최초로 출판되었다. Michael G. Moran, *Eighteenth-century British and American Rhetorics and Rhetoricians* (London: Greenwood Press, 1994), p. 208.

이러한 뉴턴적 방법에 대한 찬사는 다른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스미스는 “수사학과 문학에 대한 강의”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과 뉴턴의 방법을 비교하며 후자의 우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자연철학이나 그와 비슷한 다른 과학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모든 현상마다 하나씩 새로운 원리를 부여하면서 현상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순서대로 이런저런 다양한 분야를 섭렵할 수 있고, 뉴턴의 방식대로 최초에 알려졌거나 입증된 원리를 가정하여 그로부터 몇몇 현상들을 설명하고 동일한 사슬로 현상들을 모두 연결할 수도 있다. 후자를 우리는 뉴턴적 방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것은 분명 가장 철학적인 방법이며, 도덕이든 자연철학이든 모든 과학에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보다 훨씬 정교하고, 그런 이유로 더욱 매력적이다.⁶⁾

이와 같은 언급 때문에, 스미스에 대한 뉴턴의 영향력은 주로 방법적인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다.⁷⁾ 헨리 비터만(Henry J. Bittermann)은 스미스의 사회과학적 방법이 뉴턴의 경험주의적 방법과 동일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미스가 당대의 도덕이론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했고, “뉴턴적 실험주의 테크닉을 도덕의 문제에 적용”시키려 했다고 평가했다.⁸⁾

반면 데보라 레드먼(Deborah A. Redman)은 비터만의 견해를 반박하면서, 스미스의 경험적 방법이 뉴턴적 방법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경험으로부터의 귀납”을 통해 일반적 도덕률을 확립하려 하였으나, 이것은 뉴턴처럼 결정적 실험을 통한 명백한 결과들로부터 귀납을 통해 일반원칙을 확립하려 한 것이 아니라 베이컨적인 의미의 데이터 수집이었다는 것이다. 또

5) Adam Smith, “History of Astronomy,” W. P. D. Wightman ed., *Essays on Philosophical Subjects* (Oxford: Clarendon Press, 1980), p. 98.

6) Adam Smith, “Lectures on Rhetoric and Belles Lettres,” pp. 145-146.

7) 뉴턴의 방법과 스미스의 방법을 비교하고 그 영향력을 분석한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Henry J. Bittermann, “Adam Smith’s Empiricism and the Law of Nature I, II,”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48 (1940), pp. 487-520, pp. 703-734; Mark Blaug, *The Methodology of Economics or How Economists Expla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A. D. Megil, “Theory and Experience in Adam Smith,”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36 (1975), pp. 79-94; Deborah A. Redman, “Adam Smith and Isaac Newton,” *Scottis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40 (1993), pp. 210-230.

8) Henry J. Bittermann, “Adam Smith’s Empiricism and the Law of Nature I,” pp. 499-504.

한 스미스는 “천문학사”에서 더욱 적은 원리로 더욱 많은 현상들을 설명하여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이론이 더 좋다고 보았는데, 레드먼은 이를 근거로 스미스가 이론체계의 단순성과 같은 미적 기준에 따라 이론의 타당성을 평가했다고 보았다.⁹⁾

레드먼의 지적처럼 스미스의 방법과 뉴턴의 방법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지만, 이런 차이 때문에 스미스에 대한 뉴턴의 영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뉴턴이 『광학』이나 『프린키피아』에서 사용한 과학적 방법과 18세기 학자들이 이해했던 뉴턴적 방법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뉴턴과학을 다양하게 해석한 결과에서 기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18세기 사람들에게 스미스는 “도덕과학의 뉴턴”으로 여겨질 만큼 두 사람이 유사하게 비쳐졌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코헨(I. Bernard Cohen)은 18-19세기 사회과학이 뉴턴의 분석방법을 제대로 도입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뉴턴이 사회과학에 도움이 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이 시기 사회과학에는 만유인력과 같은 힘과 법칙들을 도입하여 사회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뉴턴적 패러다임(Newtonian paradigm)이 존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주장에 따르면, 뉴턴이 18~19세기 사회과학에 미친 영향은 뉴턴의 과학적 방법이었다기 보다는 만유인력이나 중력법칙과 같은 뉴턴 체계의 주요 개념과 법칙들의 총체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⁰⁾

18세기 동안에 ‘뉴턴적’이라는 용어는 뉴턴의 방법 뿐 아니라, 뉴턴이 제시한 새로운 자연관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새로운 정치, 문화, 종교관을 의미하기도 했다. 썸크레이(Arnold Thackray)는 ‘뉴턴적’이라는 용어를 뉴턴의 방법과 물질관, 또는 뉴턴 자신의 물질관과는 상관없이 후대 사람들이 ‘뉴턴의 물질관’이라고 추정했던 물질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의미를 확장하여 사용했다.¹¹⁾ 따라서 스미스에

9) Deborah A. Redman, “Adam Smith and Isaac Newton,” p. 229; Deborah A. Redman, *The Rise of the Political Science as a Science: Methodology and the Classical Economists* (Cambridge, M.A.: MIT Press, 1993), p. 224. H. F. Thomson도 스미스가 통일성(unity)라는 미적 기준으로 과학 이론을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Herbert F. Thomson, “Adam Smith’s Philosophy of Scienc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79 (1965), pp. 219-223.

10) I. Bernard Cohen, “Newton and the Social Sciences,” Philip Mirowski ed., *Natural Images in Economic Thought: Markets Read in Tooth & C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 56.

11) Arnold Thackray, *Atoms and Power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p. 5.

대한 뉴턴의 영향을 논하는 것은 뉴턴의 방법이 스미스에게 제대로 전수되었는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뉴턴 이후에 변화된 자연관이 스미스에게 어떤 영감을 주었는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스미스의 사상을 당시의 자연관과 연결 짓는 논의는 샤바스와 패컴에 의해 제시된 바 있으나, 이들은 이러한 자연관을 뉴턴주의라는 배경과 연결하지는 못했다. 패컴(Catherine Packham)은 18세기 스코틀랜드 생리학의 생기론(vitalism)이 스미스의 자연관 및 사회관에 영향을 미쳤다고 논하면서, 스미스의 경제체제와 뉴턴주의적 체제를 비교했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경제 시스템을 종종 신체에 비유했고, 신체에 건강을 스스로 유지시키는 미지의 보존원리가 존재하듯 경제체제도 유기체적인 생명력에 의해 자연적으로 작동된다고 믿었는데, 패컴은 이러한 스미스의 경제체제가 뉴턴주의적 체계와는 본질적으로 상이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스미스의 체계가 정해진 규칙이나 메커니즘 없이 오직 개인들의 집단적 노력만이 존재하는 자연적 자유체계인 반면, 뉴턴주의 체계는 신의 손이 끊임없이 개입되어야 하는 체계였다는 것이다.¹²⁾

마가렛 샤바스(Margaret Schabas) 역시 스미스와 18세기 생리학의 관계를 논하면서, 뉴턴의 영향력을 중요하지 않게 다루었다. 그녀는 스미스가 소수의 원리로 많은 상이한 현상들을 잇는 뉴턴의 방법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스미스가 이러한 방법으로 현상을 연결하는 사슬을 발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고 주장했다.¹³⁾ 샤바스가 보기에 스미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뉴턴의 물리학이 아닌 18세기 화학과 생리학에서 있었던 생기적 자연관이었다. 스미스가 『도덕 감정론』에서 도덕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인간의 동감(sympathy)을¹⁴⁾ 생기유

12) Catherine Packham, "The Physiology of Political Economy: Vitalism and Adam Smith's "Wealth of Nations","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63 (2002), p. 480. 자연체계에 신의 손이 개입하는지의 문제는 클라크 (Samuel Clarke, 1675-1729)와 라이프니츠(Gottfried Wilhelm von Leibniz, 1646-1716)가 서신을 통해 벌인 논쟁의 주요 쟁점이기도 했다. 이 논쟁에서 클라크는 뉴턴의 입장을 대변했기 때문에 뉴턴-라이프니츠 논쟁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라이프니츠는 세계를 신의 손이 끊임없이 개입되어야 하는 체계로 이해한다면 신의 능력을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만든 셈이라고 비판했고, 클라크는 세계가 지속적인 신의 개입 없이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신을 세계에서 배척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라이프니츠, 클라크, 배선복 역, 『라이프니츠와 클라크의 편지』(철학과 현실사, 2005), 49-54쪽.

13) Margaret Shabas, *op. cit.*, p. 268.

14) sympathy는 통상 "공감"으로 번역되나 여기서는 "동감"으로 번역했다.

체로 이해한 것이나, 『국부론』에 나타난 이기심의 조화를 린네의 자연섭리 (oeconomy of nature) 개념을 써서 이해한 것 모두가 당시의 생기적 자연관의 영향이었다.¹⁵⁾

물리적인 법칙으로 환원될 수 없는 생기원리를 도입하여 생명현상과 자연을 설명하려는 생기론과 기계적 자연관으로 대표되는 뉴턴과학의 이미지는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스미스가 “천문학사”에서 뉴턴 체계를 그토록 극찬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스미스가 뉴턴의 자연관을 자신의 생기적 자연관과 대치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뉴턴과학을 방법뿐 아니라 물질관 내지 자연관으로 그 의미를 확장한다면, 생기적 자연관과 기계적 자연관 모두 넓은 의미의 18세기 뉴턴과학의 테두리 안에 포섭될 가능성이 생긴다.¹⁶⁾

이 글은 스미스가 “천문학사”에서 뉴턴 체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임으로써, 스미스의 자연관 및 사회이론과 뉴턴과학과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한다. 아담 스미스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8세기 뉴턴과학의 범위가 방법론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해석되었다는 것이다. 스미스는 뉴턴의 중력개념을 받아들여 물질을 특별한 힘을 지닌 능동적 존재로 파악했다. 이러한 물질관을 바탕으로, 사회체계를 능동적 개별자들에 의해 전체의 질서가 유지되는 거대한 생명체로 보았다. 본 연구는 스미스에 대한 뉴턴의 영향을 자연관과 물질론의 차원에서 검토함으로써, 18세기 사상가들이 뉴턴과학을 이해한 방식과,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 경제 사상을 형성해 간 과정을 보이고자 한다.

15) *Ibid.*, pp. 270-274.

16) 실제로 18세기 뉴턴주의 생리학의 경우, 기계론에서 생기론과 유물론(materialism)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었다. 이 시기 생리학자들은 뉴턴의 인력과 에테르 개념을 도입하여 인체 각 기관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려 하였는데, 이러한 힘과 작용을 순전히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부류가 있었던가 하면, 이를 물리적 힘이나 법칙과는 다른 생기력이나 생기 원리로 이해하는 부류도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수동적인 물질에 특별한 생기원리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 각각이 생명체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유물론적 견해도 있었다. 이러한 로의 주장은 스미스의 자연관과 뉴턴과학 사이에 새로운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Shirley A. Roe, “The Life Science,” Roy Porter ed., *The Cambridge History of Science: Vol. 4. Eighteenth-Century Sci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 398.

II. 천문학의 역사와 뉴턴 체계에 대한 스미스의 인식

뉴턴 체계에 대한 스미스의 인식

스미스는 “천문학사”에서 기존의 이론체계가 새로운 이론체제로 대체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새로운 과학 이론의 발달 과정과 평가 기준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천문학사”는 스미스에 대한 뉴턴의 영향력을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연구자들에게 가장 유용한 문헌으로 활용된다. 스미스가 “천문학사”에서 기술한 과학의 과정과 평가 기준 등을 통해 그의 사회과학적 방법이 형성된 과정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천문학사”의 설명에 따르면, 천문학의 역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은 의아함(wonder)이라는 인간의 감정이다. 의아함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대상들과 아무런 유사성을 발견할 수 없는 새롭고 이상한 것을 목격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며, 천문학의 역사를 이끄는 매우 주요한 동력이다. 천문학의 예를 들어보면, 인간은 예상 밖의 천체현상을 관측했을 때 놀람(surprise)의 감정을 느끼며, 놀람 뒤에는 곧바로 의아함의 감정이 뒤따르고, 이 의아함을 진정시키기 위해 철학적 탐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철학의 기원은 의아함에서 시작되며, 철학의 역사는 불규칙한 현상의 배후에 있는 메커니즘을 밝혀 의아함을 제거하고 자연에 대한 경외감(admiration)을 키워온 과정이었다.¹⁷⁾

그렇다면 의아함을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스미스는 우리의 사고과정을 “상상과 상상 사이의 습관적 흐름”으로 보고, 이 흐름을 방해하는 상상의 간극이 의아함을 발생시키며 상상의 간극을 연결함으로써 의아함이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두 현상의 선후관계가 계속 관측될 경우 하나의 관념으로부터 다른 하나의 관념으로 이동하는 상상의 습관은 점차 고착된다. 그런데 이처럼 관습에 의해 굳어진 사고의 틀에 맞지 않는 새롭고 기묘한 현상이 관측되면 상상의 흐름에 간극이 생겨서 상상이 원활히 흐르지 않으며, 이러한 간극에서 느껴지는 괴로움이 의아함이라는 불편한 감정을 구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아함을 완화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상상과 상상을 잇는 다리를 제공하여 다시 상상이 원활히 흐를 수 있

17) Adam Smith, “History of Astronomy,” pp. 37-40.

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잇는 다리를 스미스는 ‘연결원리(connecting principle)’ 또는 “보이지 않는 사슬(invisible chain)”이라고 표현했으며, 이러한 용어들을 “천문학사”에서 매우 빈번히 사용했다.¹⁸⁾

스미스의 설명에 따르면, 상상의 간극을 잇는 연결사슬을 제공하여 의아함을 잠재우려는 노력은 천문학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되어 왔다. 천문학자들은 계절에 따른 밤과 낮의 길이 변화, 행성의 역행운동 등 불규칙해 보이는 자연현상에 대해 상상의 간극을 느끼고, 동심원이나 행성을 둘러싼 다수의 천구 등을 가정하여 자연현상에 규칙성을 부여하고 상상의 간극을 메우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의아함을 잠재웠다 해도 더 정밀한 관측과 계산이 행해지면서 기존 이론체계에 맞지 않는 사례들이 새로 발견되면 우리의 상상은 다시 간극을 느끼고 의아함이 발생된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다시 새로운 현상들을 연결하기 위해 천구의 개수를 늘리거나 편심원이나 주전원같은 개념들을 새로 도입하여 천체 시스템을 수정해보기도 하고, 급기야는 기존 시스템을 파괴하고 지동설과 같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한다. 스미스는 천문학의 역사를 이처럼 의아함을 잠재우기 위해 기존 시스템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발전하는 과정으로 기술하였다.

한편 스미스는 의아함을 완화시켰다 하더라도 그것이 더 진실에 가까운 시스템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스미스는 물질입자들의 소용돌이 운동으로 천체 현상을 설명하려 한 데카르트의 체계가 코페르니쿠스나 케플러의 체계보다 의아함을 완화시키는 면에서는 더 만족스러웠다고 보았지만, 그것이 실제와는 거리가 먼 공상적 체계임을 주지하고 있었다.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데카르트의 “자연철학 체계는 아주 그럴듯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 또한 진리와 어떤 유사성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스미스가 의아함을 완화시킨 체계와 진실된 체계를 구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뉴턴은 중력이라는 연결사슬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의아함을 완벽하게 제거했다. 그는 태양과 행성간의 거리의 제공에 반비례하는 인력으로 케플러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었고, 이전의 천문학자들이 설명할 수 없었던 천체 현상의 불규칙성을 모두 설명했을 뿐 아니라, 중력의 법칙을 통해 태양과 몇몇 행성의 밀도까지 비교할 수 있었다. 스미스는 이러한 뉴턴 체계가 “상상이 겪어왔던 모든 어려움들

18) *Ibid.*, p. 42.

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하면서,¹⁹⁾ “인간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발견”이자 “가장 가치 있고 숭고한 진실의 거대한 사슬”이라고 평가했다.

그의 시스템은 오늘날 모든 반대를 제압하고 있으며, 철학에서 일찍이 확립된 적 없는 가장 보편적인 제국의 획득으로 나아갔다. 그의 원리는 다른 체계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정도의 단단함과 견고함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가장 회의적인 사람조차도 그렇게 느낄 것이다. (중략) 심지어 우리들은, 서로 단절되고 불일치한 자연의 현상을 연결하기 위해 모든 철학 체계를 단지 상상의 고안물이라고 표현하려 애를 쓰는 동안에도, 자연이 자신의 몇몇 작업을 함께 묶는 데 사용하는 진짜 사슬이 있는 것처럼, 이 연결원리를 표현하는 언어를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사용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이 인류의 일반적이고 완전한 인정을 받아야 했다는 데 의아함을 느낄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단지 하늘의 현상들을 상상 속에서 연결하려는 시도가 아닌, 인간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발견이자,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실제의 단 하나의 기본적 사실에 의해 모든 것이 밀접히 연결된, 가장 가치 있고 숭고한 진실의 거대한 사슬을 발견했다는 사실에 대해 의아함을 느낄 수 있는가?²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스미스는 뉴턴 체계를 설명하는 이 부분에서 “(뉴턴의 연결원리가) 마치 진짜 사슬이 있는 것처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표현은 스미스를 회의주의자 내지는 반실재론자(anti-realist)로 평가하는 학자들에게 주요한 근거가 되곤 했다.²¹⁾

그렇지만 스미스가 뉴턴 이전의 체계의 연결원리를 “상상의 고안물(invention)”이라고 했고, 뉴턴 체계만큼은 ‘발견(discovery)’이라고 표현했다는 점에서, 스미스가 뉴턴 체계를 허구적 가설이나 좀 더 정교한 상상의 고안물 정도로 여기지는 않았음을 볼 수 있다.²²⁾ 또한 “천문학사”의 다른 문단에서 그는 뉴턴의 체계가 “어떤 회의주의자라도 부인할 수 없는” 시스템이며 “더 이상 다른 시스템을 고안하는 것이 무모할 만큼의” 정교함을 지니고 있으며,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연

19) *Ibid.*, pp. 98-105.

20) *Ibid.*, p. 105.

21) Christopher J. Berry, “Smith and Science,” Knud Haakanson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Adam Smit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 121.

22) 스미스가 이전 체계의 연결원리에 대해 사용한 “상상의 고안물”이라는 표현은 임시방편적인 가설(*ad hoc*)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전 체계의 연결원리 역시 일관된 원리로 다양한 현상들을 만족스럽게 설명한다는 점에서 과학적 설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스미스의 데카르트 체계에 대한 평가에서 알 수 있듯, 스미스는 만족스런 설명이 가설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지만 진실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주지하고 있었다.

결원리라고 표현했다.²³⁾

이처럼 스미스가 뉴턴 체계의 진실성을 확신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뉴턴이 단지 현상들을 전보다 더욱 견고하게 연결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중력이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사슬을 통해 자연 현상들을 완벽히 연결했기 때문일 것이다. 스미스는 뉴턴 이전의 일반적인 자연철학의 연결원리로 작동하는 사슬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사슬이 존재함을 언급한 바 있는데, 그 전혀 다른 사슬이란 화학철학의 연결원리처럼 현상을 고유한 성질을 가진 물질들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스미스는 “천문학사”에서 화학철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어째서 모든 시대 화학철학은 어둠 속에서 기어가는가? 그리고 다른 시스템들이 유용성도 떨어지고 경험에 더 부합하지 않음에도 전 세기동안 보편적 존중을 받아온 반면, 왜 화학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경시 당하는가? 화학철학의 연결원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거의 모르고 결코 친숙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있어서는 연관이 없어 보이는(disjointed) 두 개의 대상들 사이의 상상의 통로를 부드럽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금과 산, 황, 수은, 산과 알칼리는 용광로를 다루는 사람들에게만 사물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원리이다. 그러나 이것들의 가장 일반적인 작용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화학자들이 연결하려는 두 사건들만큼이나 연관이 없어 보인다.²⁴⁾

스미스는 화학철학이 “어둠 속에서 기어가며”,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경시 당한다”고 말하지만, 그가 화학을 천문학이나 물리학보다 열등하게 보았던 것은 아니다. 스미스는 평소 화학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데다, 화학철학의 체계가 진실과 유사성이 없다거나 다른 시스템보다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고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학의 연결원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다수”에게만 보이지 않는 것이었을 뿐이다. 스미스가 보기에 화학철학의 연결원리는 기계적 연결원리와는 달리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원리이지만, 전문가들에게는 친숙한 원리였다.

뉴턴의 연결원리란 바로 화학철학에서처럼 물질 각각의 성질로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뉴턴은 화학철학자처럼 기계적 법칙이 아닌 물질이 지닌 중력이라는 힘을 연결원리로 상정했고, 이것이 스미스가 뉴턴을 위대한 천재이자 현자로 평가한 이유일 것이다. 뉴턴 체계에서 행성들은 특정 궤도나 케플러의 법칙과 같은 외부적 원인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물질의 운동은 어떤 법칙에 의해 강제당하는

23) Adam Smith, “History of Astronomy,” p. 104.

24) *Ibid.*, p. 46.

것이 아니라 각각이 지닌 활성화 힘에 따라 스스로 운동하며, 천체의 운동법칙들은 이러한 개별적 운동들이 조화를 이룸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할 뿐이다.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뉴턴의 사슬은 존재하지 않는 사슬이며 스미스가 뉴턴의 사슬을 “마치 진짜 사슬인 듯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²⁵⁾

중요한 점은 스미스가 이러한 뉴턴 체계를 기계적인 체계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뉴턴의 체계가 물질의 불활성이라는 오래된 관념을 극복했다는 데서 의의를 찾았으며, 중력을 일종의 활성화(vitality) 또는 자발적이고 생기적 힘으로 이해했는데, 이러한 스미스의 독특한 이해는 뉴턴이 그에게 미친 영향을 재평가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뉴턴 중력에 대한 스미스의 이해

스미스가 보기에 천문학의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극복되지 못했던 관념은 바로 지구나 지구의 일부인 물질의 불활성(inertness)이라는 관념이었다.²⁶⁾ 중력은 물체의 낙하를 통해 우리가 매일 경험해 온 실재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친숙한 원리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를 오랫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오랜 기간을 지나면서 굳어진 물질의 불활성이라는 관념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스미스가 서술하는 천문학의 역사는 물질의 불활성을 조금씩 극복해 온 역사

25) 스미스가 이해한 뉴턴적 물질관은 물질의 활성화 힘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활성의 물질관과 대비되는 생기적 물질관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스미스가 스코틀랜드 생리학의 영향으로 자연 및 사회체계를 생기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패컴의 주장과 부분적으로 합치된다. 패컴은 스미스의 생기적 자연관과 뉴턴적 자연관이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뉴턴적 자연관이 당시 생리학자들에게 기계론에서 생기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해되었음을 고려한다면 패컴의 주장은 일부 수정될 수 있을 것이다. Catherine Packham, *op. cit.*, pp. 475-476.

26) 여기서 스미스가 말하는 불활성이란 물질이 정지 상태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의 개념이 아니라, 외부적 힘이 지속적으로 주입되지 않으면 운동할 수 없는 물질의 수동성, 또는 운동에 저항하는 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스미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지구에 무거움과 운동에 저항하는 성질을 부여함으로써 지구가 불활성이라는 관념을 만들었다고 보았다. 스미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천상과 지상, 자연스러운 운동과 부자연스러운 운동을 구분함으로써 지상계는 열등한 것이 되었으며, 지상계를 자연과 우연, 필연의 지배 아래 버려두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Adam Smith, “History of Ancient Physics,” W. P. D. Wightman ed., *Essays on Philosophical Subjects* (Oxford: Clarendon Press), p. 115.

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흙, 물, 공기, 불, 천상계의 물질을 구분하고, 이것들이 각각 무거움과 가벼움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 흙은 무겁고 운동에 저항하는 성질을 지닌 불활성의 물질이며 따라서 흙으로 이루어진 지구 역시 우주의 중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자리 잡고 있었다.²⁷⁾ 소요학과에 의해 굳어진 “지구는 불활성”이라는 편견에 따르면, 지구는 움직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운동에 거스르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지구와 돌 등 무거운 것들의 자연스러운 운동은 중심을 향해 낙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지구는 이미 우주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떠한 운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계속적인 회전 운동이 가능한 것은 하늘뿐이며, 지구의 운동은 부자연스러운 운동이므로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스미스는 코페르니쿠스의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의 이론이 일반인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지구가 움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불활성이라는 편견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최초로 지구가 아닌 태양을 행성 운동의 중심에 두었던 코페르니쿠스의 체계가 행성들을 지구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의아함을 덜어내었지만, 정지해 있다고 믿었던 지구가 태양 주위를 회전한다는 자연관은 현상의 이상함보다 더욱 큰 의아함을 발생시켰다고 평가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히파르쿠스는 행성이 지구와 전혀 다른 종류의 천체이며 행성 운동은 자연스러운 운동이므로 아무런 방해 없이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코페르니쿠스는 행성들을 지구와 같은 종류의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행성이 지구와 같은 종류의 것이라면 그들의 자연적 불활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다. 또한 지구의 자전 역시 부자연스러운 운동이기 때문에 엄청난 방해를 받을 것이며, 지구 표면에는 격렬한 폭풍이 불어 닥칠 것인데 이런 현상이 관측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었다. 스미스는 이러한 모든 문제제기가 지구가 불활성이라는 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했다.²⁸⁾

스미스는 케플러의 시스템이 코페르니쿠스 체계가 설명하지 못했던 현상들을 몇 가지 법칙으로 거의 완벽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이 느끼는 유일한 어려움을

27) Adam Smith, “History of Astronomy,” pp. 104-105; *Ibid.*, p. 78.

28) *Ibid.*, pp. 77-79.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것 역시 지구와 행성의 불활성이라는 관념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케플러의 체계가 설명하는 행성의 움직임과 그것들의 자연적 불활성(natural inertness)이라는 습관적 관념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incompatible)” 것이었다는 것이다. 케플러는 그 간극을 잇는 보이지 않는 사슬로서 태양에서 나오는 생기적이고 비물질적인 힘(virtue)을 가정했지만, 우리의 관념은 비물질적인 힘을 받아들이 수 없었고, 그 힘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확실하게 개념화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²⁹⁾

스미스는 데카르트 체계의 한계 역시 물질의 불활성이라는 개념을 극복하지 못한 데서 찾고 있다. 데카르트는 지구가 불활성이라는 오래된 관념을 거부하지 않고도 행성의 운동들을 물질의 불활성에 따른 연속적인 충돌의 결과로 설명함으로써 의아함을 완화시키고 만족할만한 설명을 제공했지만, 바로 그것이 데카르트 체계의 한계였다.³⁰⁾ 스미스는 데카르트가 물질의 불활성이라는 관념을 운동에 거스르려 하거나 정지하려는 성향도 아니라는 식으로 일부 수정하긴 했지만, 이를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데카르트는 물질의 불활성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물질에 최초의 운동을 부여한 신을 상정해야 했다는 것이다.³¹⁾ 이렇듯 스미스는 데카르트가 관성을 도입하여 행성과 물체의 불활성이라는 관념을 통일시킨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지만, 그 체계의 결정적 결함 역시 물질에 불활성의 개념이 잔존해 있다는 데에서 찾았다.³²⁾

이렇게 볼 때 스미스는 “물질의 불활성”이라는 오래된 관념을 천문학의 역사에 있어서 극복해야 할 잘못된 편견으로 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스미스가 보기에, 뉴턴의 업적은 물질이 지닌 중력이라는 힘을 발견하여, 천문학의 역사에서 가

29) *Ibid.*, p. 91.

30) *Ibid.*, p. 98.

31) *Ibid.*, p. 92. 스미스가 데카르트의 관성 개념을 물질의 불활성을 어느 정도 극복했던 견해로 평가했던 것과 반대로, 과학사가인 오슬러(Margaret J. Osler)는 관성의 개념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능동적 물질 개념을 불활성의 물질개념으로 바꾸었다고 평가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질료인, 형상인, 목적인, 작용인이라는 4원인에 의해 운동이나 현상들을 설명하려 했다. 오슬러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은 물질을 움직이게 하는 작용인은 물질의 질료와 형상 및 목적에 따라 작용하므로, 물질은 자신의 활동원리를 내부에 간직하고 있는 셈이었다. 그런데 외부적 힘이 개입해야 물질이 운동 상태를 바꿀 수 있다는 관성의 개념은 물질의 불활성개념을 함의하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Margaret J. Osler, “Whose Ends? Teleology in Early Modern Natural Philosophy,” *Ciris*, 2nd Series, 16 (2001), pp. 154-155.

32) Adam Smith, “History of Astronomy,” pp. 98-103.

장 오랫동안 극복되지 못했던 관념, 바로 지구나 지구의 일부인 물질의 불활성(inertness)이라는 관념을 극복한 것이었다.

스미스가 이해한 중력이란 그 자신이 스스로 운동 원리를 지니게 하는 활성(vitality)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스미스가 이해한 중력이란 물질에게 본래 각인되어 있다가 튀어나오는 힘(projecting force originally impressed them)이며, 그것은 물체의 고유한 힘이자 우주를 구성하는 주요한 동인(original and primary mover)이었다. 스미스는 뉴턴 체계에 대해 설명하며, 물질의 속성 가운데서도 가장 친숙한 속성은 이제 불활성이 아닌 중력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처럼 스미스는 중력을 불활성이라는 기존의 물질 관념을 대체하는 특징으로 이해하고 있었다.³³⁾

스미스는 “외부적 감각에 대하여”라는 에세이에서 물질이 활성적 힘을 지니고 있으며, 그 힘은 중력과 매우 유사하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이 글에서 그는 인간이 외부적 대상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어떻게 그 대상의 온도, 냄새, 향기 등을 지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면서, 원격으로 작동하는 감각발휘력(power of exciting that sensation)을 가정했다. 예를 들어 음식의 맛은 음식이 혀에 닿는 외부적 감각에 의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미각을 담당하는 우리의 감각기관 안에서 느껴지는 느낌(felt not as external but in the organ)이며, 우리가 무엇을 볼 때 그 대상(tangible object)은 인간의 시각기관에 그 대상을 지시하는 시각 대상(visible object)을 떠올리게 한다고 보았다.³⁴⁾ 더군다나 이러한 감각을 일으키는 힘은 중력과 마찬가지로 대상간의 거리에 반비례한다고 하였다.³⁵⁾

스미스는 이처럼 원격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인간의 감각까지 일으킬 수 있는 활성적 힘의 존재를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힘의 개념은 거리에 반비례하여 원격 작용한다는 점에서 뉴턴의 중력개념과 매우 흡사하다. 이러한 유사성은 스

33) Adam Smith, “History of Astronomy,” pp. 98-104.

34) Adam Smith, “Of The External Senses,” W. P. D. Wightman ed., *Essays on Philosophical Subjects* (Oxford: Clarendon Press, 1980), pp. 142-148. 이 에세이 역시 스미스의 사후에 출판되었으며 언제 씌어졌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스미스의 『철학 에세이』를 편집한 화이트먼(W. P. D. Wightman)은 이 에세이의 내용으로 보아 흠과 긴밀한 교제를 맺기 이전인 1752년 이전에 씌어진 것이라고 추정했다. W. P. D. Wightman, “Introduction,” W. P. D. Wightman ed., *Essays on Philosophical Subjects* (Oxford: Clarendon Press, 1980), p. 133. 스미스가 “외부적 감각에 대하여”를 1752년 이전에 썼다면, “천문학사”에서 뉴턴의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집필하기 훨씬 이전부터 스미스는 뉴턴의 중력을 생리적 물질론의 근거로 해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각주 2 참고)

35) Adam Smith, “Of The External Senses,” p. 151

미스에게 미친 뉴턴적 물질론의 영향을 보여준다. 스미스는 물질 각각이 자발적이고 활성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러한 물질들로 이루어진 세계는 기계적 세계관보다는 생기적 세계관 내지는 유물론적 세계관에 더 가까운 것이었다.³⁶⁾

III. 스미스의 생기적 도덕체계와 경제체계

스미스의 자연과 인체에 대한 관점은 당시 뉴턴주의 생리학에서 논의되던 생기적 관점과 많은 부분 유사하다.³⁷⁾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경제체계를 종종 신체에 비유하면서, 동물들의 신체에 건강을 유지하는 미지의 원리가 있는 것과 같이 경제에도 비슷한 원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패컴은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사용한 ‘부(wealth)’라는 단어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건강(well-being)’을 의미하는 고어 ‘weal’에서 유래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스미스에게서 “인체와 경제, 개인과 집단 사이의 연관성은 경제를 인체로 보는 이미지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며, 이러한 이미지는 스미스의 정치경제 이론 및 개인적 노동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핵심

36) 스미스가 뉴턴을 이해한 방식이 ‘스미스만의’ 독특한 이해방식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후술하겠지만, 스미스에게 영향을 미친 18세기 스코틀랜드의 생기적 생리학자들이나 화학자들 역시 뉴턴의 중력을 생기론의 근거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9일 있었던 역사학대회 과학사부 발표에서는 스미스가 뉴턴을 독특하게 이해하여 사회관을 형성했다기 보다는, 자신의 생기적 사회관을 먼저 형성하고 그에 따라 뉴턴 과학을 읽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당시 뉴턴주의자들이 사회체계를 유기체에 비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할지라도 뉴턴 과학을 생기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고 말하기 힘들며, 스미스의 생기적 사회관이 뉴턴과학에 대한 일반적 이해방식에 기인했다고 볼 수 없다. 서론에서 설명한대로, 뉴턴 과학에 대한 해석은 기계론에서 유물론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일반적이었다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했다. 코헨이 지적한대로 중력법칙이나 만유인력과 같은 뉴턴 과학의 주요 개념들을 사회현상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일반적이었다 하더라도, 그 개념들을 해석하고 의미부여하는 방식은 상이했다. 코헨은 당시 사상가들이 뉴턴 물리학을 과학적으로 부정확하게 이해하여 사회체계와 뉴턴 체계를 완벽히 매치시킨 반면, 스미스는 뉴턴 물리학의 정확한 의미(original idea)를 “창조적 변환(creative transformation)”을 통해 사회영역에 적용했다고 말했다. I. Bernard Cohen, *op. cit.*, pp. 65-66.

37) 당시 스코틀랜드의 생기적 생리학이나 화학은 뉴턴의 에테르나 인력과 같은 뉴턴 과학의 개념을 차용하고 실험을 통한 이론을 검증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뉴턴주의라는 전통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Anita Guerrini, “James Keill, George Cheyne, and Newtonian Physiology, 1690-1740,” *Journal of History of Biology* 8 (1985). pp. 247-249.

적인 것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³⁸⁾ 또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동감이라는 인간의 보편적 성향에 바탕한 도덕체계를 구축하려고 하였는데, 이 동감이라는 개념은 당시 스코틀랜드 생리학에서 인체 각 기관의 상호작용과 조화를 설명하는데 주로 사용되던 용어였다.³⁹⁾

『국부론』의 핵심적이고도 널리 알려진 개념은 개개인의 이익 추구를 전체적인 사회의 조화로 이끄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이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을 『국부론』에서 단 한번 밖에 사용하지 않았지만, 『도덕 감정론』에서도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여 자연계와 인간 사회의 질서를 설명하고 있는 만큼, 이 “보이지 않는 손”은 스미스의 자연체계와 사회체계를 설명하는 핵심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일반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추진하고자 의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얼마만큼 그것을 촉진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중략) 그는 그저 자신의 안전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는 다만 그 자신의 이득만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그는 다른 많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그의 의도 속에는 전혀 없었던 목적을 추진하게 되는 셈이다. (중략)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그는 때때로, 실제로 사회의 이익을 추진하려고 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그것을 추진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고 뽐내는 사람들에 의해 그리 큰 이익이 실현된 예를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⁴⁰⁾

위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들이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은 실제로 개인의 행동을 유도하거나 이끄는 것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개인들 사이의 사사로운 충돌을 조정하지 못하며, 개인들의 행위를 강제하지도 않는다. 사회체계를 구성하는 개인들은 “보이지 않는 손”의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각자의 이기심을 추구함에 따라 “보이지 않는 손”의 효과가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⁴¹⁾ 패컴은 이를 두고 “보이지 않는 손은 존재하지 않는다(There is no invisible hand)”고 표현하였다.

스미스는 사회체계에 “미지의 건강 원리”와 같은 것이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38) Catherine Packham, *op. cit.*, p. 468.

39) Evelyn L. Forget, “Evocations of Sympathy: Sympathetic Imagery in Eighteenth-Century Social Theory and Physiology,”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35 (2003), pp. 284-289.

40) 아담 스미스, 『국부론』, 465쪽.

41) Packham, *op. cit.*, p. 479.

갈등과 부조화가 발생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조화와 질서가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상업과 공업을 비생산적으로 규정하고 농업의 생산성만을 인정했던 중농주의자 케네(François Quesnay, 1694-1774)의 인체 및 사회 모델을 비판하는 부분은 스미스의 생리적 인체관 및 사회관을 잘 보여준다.

인체의 건강한 상태는, 그 자체 속에 어떤 미지의 건강유지 원리를 내포하고 있어서, 매우 그릇된 양생법의 나쁜 결과까지 대부분 방지하고 시정할 수 있는 듯하다. 스스로 의사이고, 또 매우 이론적인 의사였던 케네는, 정치체에 대해서도 인체에 대해서와 같은 종류의 생각을 가지고, 정치체는 일정하고 정확한 양생법, 즉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정의라는 엄밀한 양생법 하에서만 번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각자가 자신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하고 있는 자연적인 노력이, 정치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불공평하고 억압적인 경제 정책의 나쁜 결과를, 대부분의 점에서 방지하고 시정할 수 있는 건강유지의 원리라는 것을 그는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다.⁴²⁾

이처럼 스미스는 사회를 생명을 지닌 동물의 신체에 비유하고, 생명체의 건강 원리로 사회의 질서와 조화를 설명했다. 즉 엄격한 양생법을 시행하지 않아도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는 생명체처럼, 사회 역시 개인들과 정부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진보한다는 것이다.

스미스는 사회가 부분적인 부조화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질서를 이루며 진보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상황을 더 개선하고자 하는 개개인의 한결같이 변함없고 끊임없는 노력(efforts)”때문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노력은 “태내에서부터 우리와 함께 태어나서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결코 떠나본 일이 없는 욕구(desire)”라는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⁴³⁾ 즉 스미스는 경제체계를 활기차게 유지하는 원리와 부의 원천을 인간이 가진 본성에서 찾았던 것이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질서가 유지되는 스미스의 사회경제체제는 특별히 인체를 조정하지 않아도 생명체 스스로 건강을 유지한다는 생리적인 인체관과 유사하다. 당시의 생리적 생리학자들은 실험을 통해 체온의 유지, 발열, 신체의 수분이 땀이나 오줌 등 적절한 경로를 통해 배출되는 선택적 정화와 같은 생명체만의 독특한 현상들을 관찰하는 데 주력했는데, 그들이 이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

42) 아담 스미스, 『국부론』, 707쪽.

43) 아담 스미스, 『국부론』, 352쪽. 여기서 스미스의 ‘노력’이라는 개념은 개인의 욕망을 추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행동을 제약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 ‘efforts’로서, 흙스가 말한 “자기 보존의 욕구(endeavour)”라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던 것은 기계적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생명체만의 특별한 생명유지 능력이었다.⁴⁴⁾ 스미스는 이들 생기적 생리학자들과 긴밀히 교류하며 스스로 건강을 유지한다는 이들의 인체관을 사회체계로 확장시킨 것이다.

특히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노력에 의해 전체적 조화를 유지하는 스미스의 사회체계는 당시의 생기론자였던 컬른(William Cullen)의 인체모델과 비교할 수 있다.⁴⁵⁾ 컬른은 인체의 신경계를 통해 서로 다른 기관들이 어떻게 교류하는지를 생기원리(vital principal)로 설명하려 했는데, 이 생기원리란 외부에서 신체의 작동원리에 관여하는 어떠한 외인성(exogenous)의 법칙이 아니었다. 컬른은 이 생기원리를 신경계 안에서 자극에 대한 감각을 해당기관으로 실어 나르는 에테르적 유체(etheric fluids)라고 보았다. 즉 컬른은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에테르라는 물질적 실체들의 활성적 능력에 의해 자연적으로 생명과 건강이 보존된다고 보았던 것이다.⁴⁶⁾

인간의 본성에 의해 질서를 유지하는 스미스의 경제체계는 각각의 물질들이 지닌 중력에 의해 천체의 조화를 자아내는 뉴턴 체계와도 대응한다. 이 글의 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스미스는 뉴턴 체계에서 물질들이 자연법칙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불활성의 입자라고 보지 않았다. 스미스는 물질의 중력을 물질에게 본래 각인된 고유의 힘이자 우주를 구성하는 주요한 동인이라고 표현했다. 스미스가 이해했던 뉴턴 체계는 이처럼 활성적 힘을 지닌 물질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생기적 체계였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스미스의 경제체계에서 인간들은 외부적 법칙에 따라 행위하는 수동적인 존재들이 아니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44) 18세기 초 스코틀랜드의 뉴턴주의 생리학은 생명현상을 기계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이 실패하면서, 생명체만의 독특한 생명유지 능력에 주목하는 생기적 생리학으로 전환되었다. 17세기 말에서 18세기 말까지 뉴턴주의 생리학의 변화와 흐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Theodore Brown, "From Mechanism to Vitalism in Eighteenth-Century English Physiology," *Journal of the History of Biology* 7 (1974); Anita Guerrini, "James Keill, George Cheyne, and Newtonian Physiology, 1690-1740," *Journal of History of Biology* 8 (1985).

45) 샤바스는 스미스에게 영향을 준 컬른의 화학이론들이 생기론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스코필드는 컬른을 유물론자로 분류했다. 컬른에게서 생기론과 유물론은 거의 구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를 어느 쪽으로 분류해도 무방할 것이다. Margaret Schabas, *op cit*, p. 265; Robert E. Schofield, *op cit*, p. 207.

46) 스미스가 컬른에 대해 "생각이 같은 동료(a likeminded ally)"라고 말할 만큼 두 사람은 유사한 사상적 기반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컬른은 1755년 이후 로버트 휘트(Robert Whytt)의 자리를 물려받아 에딘버러 대학의 의학부로 자리를 옮겨 해부학 교수였던 몬로(Alexander Monro), 선임자 휘트와 함께 신경의학을 발전시켰다. Margaret Schabas, *op cit*, pp. 264-265.

수동적으로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들의 욕구를 추구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을 창출하는 능동적 존재들이었던 것이다.

스미스가 설명한 “보이지 않는 손” 역시 “천문학사”에서 말한 뉴턴의 사슬에 대응될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 “보이지 않는 손”은 인간의 행위를 강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뉴턴 체계에서 뉴턴의 사슬이 물질의 운동을 완벽히 설명한다 해도, 이는 물질이 그 사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 아니었다. 물질은 오직 자신이 지닌 중력 원리에 따라 움직이며, 이에 따라 뉴턴의 사슬을 구성할 뿐이다. 즉 뉴턴의 사슬이란 물질 각각의 중력에 다름 아니었다. 스미스가 “천문학사”에서 뉴턴의 사슬을 “진짜 사슬인 듯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도 『국부론』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에 입각하여 도덕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는 여기서 모든 인간이 동감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전제하고, 동감이라는 인간의 보편적 특징으로부터 자신만의 도덕체계를 구축했다. 동감이란 타인이 처한 상황을 인식함에 따라, 타인의 고통이나 기쁨을 저절로 느낄 수 있는 능력인데, 이러한 동감 능력은 어린아이부터 극악무도한 악인에 이르기까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유덕한 자질이였다. 이러한 동감 능력에 따라 인간은 타인의 행위가 인정받을 만한 행위인지 비난받을 만한 행위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⁴⁷⁾

스미스는 이러한 동감으로부터 도출되는 정의가 법과 제도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란 인간의 동감 능력에 의해 불의의 행동에 분개하고 정당한 처벌에 찬성하게 되는 또 하나의 덕성이다. 즉 동감이 아닌 정의의 단계에서 도덕적 강제력이 발생하지만, 이 정의는 동감이라는 내재적 감정이 발현된 단계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⁴⁸⁾ 결국 스미스는 법과 제도의 근간이 되는 정의를 인간에게 본연적으로 내재한 동감 능력에서 찾고 있는 셈이다.

47) 아담 스미스, 『도덕 감정론』, 27-28쪽.

48) 스미스가 말하는 정의란 의롭고 선한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의는 스미스의 도덕체계에서 긍정적 기능을 하지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분개의 감정을 일으키기도 한다. 같은 책, 151쪽. 스미스는 인간의 본성이나 도덕성에 대한 가치 판단과 같은 형이상학적인 문제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을 통해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 Knud Haakonssen, “Introduction: The Coherence of Smith’s Thought,” Knud Haakonssen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Adam Smith*, pp. 4-5.

스미스는 인간 누구나 지니고 있는 정의의 감정을 전제하고 이러한 본성을 자연체계에서의 물체의 활성화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파악했다. 그는 자연이 인간의 가슴 속에 정의의 감정이라는 “인간 사회의 파수꾼”을 심어주었으며, 인간의 마음 속에 이러한 정의가 없다면 인간 사회는 “원자로 붕괴”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인간 사회에서 이러한 정의에 따른 행동원칙들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인간사회는 “무로 붕괴”될 것이라고도 말했다.⁴⁹⁾ 여기서 스미스는 정의의 감정이 없는 인간을 불활성의 원자로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꿔 말한다면, 인간 개개인이 지닌 정의에 따라 질서가 구축되는 사회체계는 물질들이 지닌 중력이라는 원리에 따라 전체적인 조화가 구축되는 뉴턴 체계와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스미스가 『도덕 감정론』에서 추구했던 “정의의 법” 역시 “뉴턴의 사슬”이나 “보이지 않는 손”에 대응될 수 있을 것이다. “정의의 법”이란 사회를 이루는 개인들이 지닌 ‘동감’이라는 속성에 다름 아니다. “정의의 법” 체계 안에서 인간은 동감의 원리에 따라 도덕적인 판단을 하고 자신만의 판단에 따라 행위하는 존재이다. “정의의 법”은 인간에게 행동지침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정의의 법”이란 결의론자들의 규범집처럼 성문화된 형태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패컴의 표현을 변형하여 말하자면, 정의의 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뉴턴의 사슬이 “마치 진짜 사슬이 있는”듯 한 것과 흡사하다.⁵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스미스는 사회체계의 질서가 어떠한 강제적 법칙에 의해 유지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손”이나 “정의의 법”은 인간의 행위를 강제하지 못하며, 인간은 법칙의 지배를 받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욕구와 본성에 따라 능동적으로 행위하는 존재였다. 스미스는 이를 “인간 사회라는 거대한 장기판에서 모든 말 하나하나가 자기 자신의 운동 원리”를 가진다고 비유하였다.⁵¹⁾ 즉 스미스는 인간의 자유와 능동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을 활성화적 물질에 비유했던 것이다. 뉴턴 체계에서 각각의 물질들은 자기 자신의 운동원리를 가지고 있으며, 물질은 오직 자신에게 내재한 운동원리에 따라 움직임으로써 천체의 조화를 자아냈듯이, 스미스는 인간 사회라는 거대한 장기판 역시 개인들이 어떠한 외부적 규칙에 따르지 않고 각자에 내재한 운동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뉴턴적 체계로 이해했던 것이다.

49) 아담 스미스, 『도덕 감정론』, 164쪽, 290쪽.

50) 같은 책, 524쪽.

51) 같은 책, 78쪽.

IV. 결론

지금까지 스미스가 뉴턴의 물질론과 뉴턴의 사슬, 그리고 이로 구성된 뉴턴 체계를 생기적으로 바라보았음을 보였다. 스미스는 뉴턴 체계의 의의를 물질의 불활성이라는 오랜 관념을 극복하고 물질에 중력이라는 운동원리를 부여한 데서 찾았다. 스미스가 이해했던 중력이란 물질 안에 각인되어 있다가 튀어나오는 힘이었으며, 물질 스스로의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동인이었다. 즉 스미스가 이해한 뉴턴 체계에서 물질은 외부의 힘에 의해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것이 지닌 힘에 따라 스스로 운동하는 활성적 존재들이었던 것이다.

스미스의 생기적 관점은 “천문학사”와 『국부론』, 『도덕 감정론』에서 모두 드러나고 있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사회체계를 인체에 비유하고, 그것이 동물생명의 “미지의 원리”에 따라 질서가 보존되고 진보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미지의 원리”란 다른 아닌 인간의 본성이라 할 수 있는 “더 나은 상태를 향한 개선의 욕구”였다. 스미스는 이러한 인간의 보편적 본성에 의해 경제 시스템이 유지되고 사회의 부가 창출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도덕 감정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스미스는 모든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동감”의 원리에 입각해 정의의 법을 세움으로써 사회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스미스의 사회체계관은 생명현상을 기계적 법칙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생명체에는 특별한 생기원리가 있다고 가정했던 당시 스코틀랜드 생리적 생리학의 신체관과 유사하다. 이들은 뉴턴의 에테르나 인력의 개념들을 사용하여 인체의 작동을 설명하고, 실험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뉴턴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 그들의 인체관이나 물질관은 기계적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스미스는 당시 생기적 생리학이 활발히 논의되던 에딘버러 철학 소사이어티의 멤버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했으며, 글래스고 대학에서는 동료 교수이자 생기론자였던 켈른과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생기적 생리학을 접할 수 있었고, 이들과 같은 생기적인 물질관과 생기적 인체모델을 받아들여, 사회체계를 생명체의 원리가 작동하는 거대한 생기적 인체로 이해했던 것이다.

스미스에게 있어서 체계의 질서와 조화는 외부의 강제나 규율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었다. 스미스가 이해했던 뉴턴 체계에서, 자연의 질서와 조화는 수동적인 물질들이 법칙에 따라 운동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 물질들 하

나하나가 자신들이 지닌 활성적 힘에 따라 움직임으로써 “뉴턴의 사슬”이라는 전체적 조화가 구성되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스미스는 사회체계의 질서가 통치자의 법이나 강제가 아닌 개인의 유덕한 본성에 의해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모든 개인들은 전체의 조화를 향한 유덕한 본성을 지니고 있으며, 개인들이 이러한 본성에 따라 행위할 때 의도하지 않게 전체적인 조화가 발생하고 사회는 점진적으로 진보한다는 것이다. 스미스는 개인이 각자의 감정에 따라 행위하면서 의도하지 않게 생성되는 자연적 질서를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물질의 중력에 의해 형성된 “뉴턴의 사슬”과 마찬가지로 실재하는 사슬이 아니었으며 어떠한 강제적 힘을 지니지 않는 것이었다.

스미스는 자연적 질서를 강조하면서도, 인간을 자연적 질서에 수동적으로 순응하는 존재로 보지 않았다. 그는 인간을 체스판에서 각자의 운동원리로 움직이는 말들과 비교하였는데, 이것은 인간을 수동적인 존재로 보았던 것이라기보다는 뉴턴의 체계에서와 같은 활성을 가진 물체에 비유한 것이었다. 이러한 비유는 인간을 불활성의 입자로 비유한 홉스나, 인간의 악덕에 의해 자연의 조화를 설명하려는 망데빌등의 견해와는 다른 인간관을 보여준다. 즉 스미스는 뉴턴체계에서의 중력과 같이, 인간은 동감과 이기심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활동하며 이러한 특성은 결과적으로 사회체계를 연결하는 사슬로서 기능했다. 물질, 중력, 인간, 그리고 인간 사회의 윤리 모두는 스미스가 파악했던 생기적 뉴턴주의로 묶여질 수 있는 존재였던 것이다.

논문 투고일: 2010년 5월 17일

논문 수정일: 2010년 6월 7일

게재 확정일: 2010년 6월 13일

<ABSTRACT>

Adam Smith's Understanding of the Newtonian System as the Vitalistic Universe

KIM Jiwo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This paper suggests that Smith understood Newton's system as the vital universe, composed of matters having their own vital power. Smith thought that the most significant factor in Newton's system was the changing nature of matter, converting from an inert and brute status to a self-movable and vital one. In Newton's system, according to Smith, the harmony of the universe was maintained as each matter moved as a result of its inherent force, not by an external force.

Smith's vitalistic view appeared in his *Wealth of Nation* and *Theory of Moral Sentiments*. Smith believed that each individual was an active being, just as matter had active power in Newton's system. He also thought that each individual did not passively adhere to the orders set by the society, but actively created order within the society, just as matter spontaneously contributed to the harmony of the universe by itself. In other words, Smith's view on matter, nature, human beings, and society can be understood in terms of his vitalistic Newtonianism.

keywords: Adam Smith, Newtonianism, Vitalistic Physiology, History of Astronomy, Newtonian Method.